

## 21세기의 환경 전망과 국제적 대응

권 속 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 산업 발전은 무제한 자원을 소진하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오염을 계속 촉진시키고 있다.

토지수요가 급속히 증대하면서 산림, 해안을 개발하여 도시, 공업지역으로 전용함으로써 자연의 생태가 파괴되고, 이들 자연의 기능과 생산력은 상실되고 있다. 자연의 파괴는 연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오염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에너지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면서 에너지원의 고갈은 물론, 화석연료사용과 더불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기오염은 양적으로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기오염물이 산업발전과 병행해서 출현하여 새로운 피해를 나타내고 있다. 대기중의 각종 VOC, 방사성물질, 유해한 부유분진은 산성우와 더불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수자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오수의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증가한 오수배출량은 다시 수자원에 유입되어 호수, 저수지, 토양을 오염시켜 수자원의 질을 악화시켜 수중생태계를 대규모로 파괴하고 있다. 수자원의 질적악화는 용수공급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온다.

각종 산업기술의 발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촉진시켜 유독화합물의 개발과 수요증대로 인한 폐기물배출량을 증대시키고 자원의 고갈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21세기의 미래산업은 기술발전에 따라 자원의 대량수요와 환경오염의 심각화가 불가피해진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부각되는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생물다양성파괴, 방사선피해 등은 지구적규모로 나타난 20세기의 유물이며 인류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강대국과 개발도상국, 빈곤과 번영, 냉전과 평화, 독재와 민주주의의 갈등사이에서 유발된 환경파괴는 21세기에도 이어질 수는 없다. 이제 환경평화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세계적인 국제환경협력만으로 가능하다. 장차 환경에 관한 세계의 간섭과 감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각종 생산기술은 물론 환경기준, 보전기술과 투자가 국제적협약에 의해서 강요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때에 어느 국가도 환경오염의 원인을 방치하거나 대책기술을 독점할 수 없다.